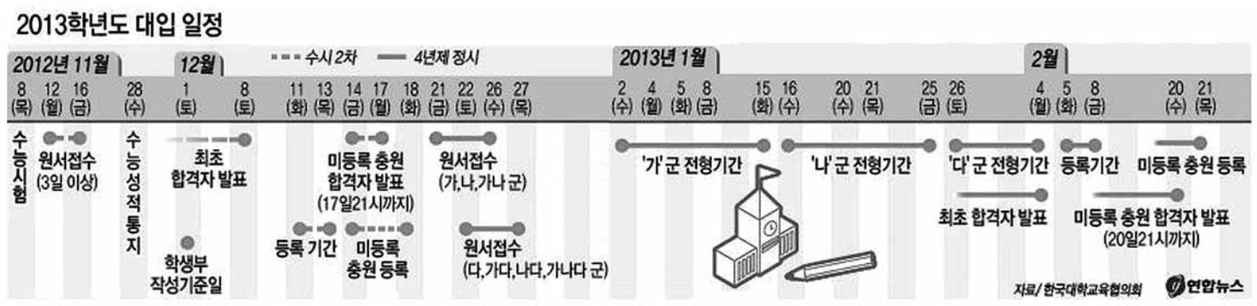
10월부터 길게는 4~5개월간 매달려
지방생 전형료 등 부담… '入試學' 푸념도



대학 한번 가려다 수험생·학부모 '탈진'

#1. 광주의 한 사립고 3학년 김모군은 지난해 11월 8일 수능이 끝난 후 석달째 입시에 매달려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시1차를 통해 뽑는 수도권 대학 3곳에서 논술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다. 곧바로 수시 2차에 도전했는데 불합격했다. 하지만 김군은 수능성적이 좋아 정시를 기약했다. K대와 국립대 정시에 응시해 K대는 우선선발로 합격했고, 국립대도 1차 합격했다. 김군은 이번 논술·면접구술 시험을 대비해 서울의 유명 학원에서 집중학습을 하고 있다.

#2.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강모(48)씨. 수시 비중이 70%대로 높아지면서 이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지난해 4월 학교를 찾았다. 담임을 만나 상담했지만 그는 오히려 "부모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결정해 오면 서류는 작성해 드릴게요"라며 학부모에게 떠넘겼다. 강씨는 이후 교육청·대학·입시학원 등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만 5차례나 쫓아다녔다. 그래도 갈피를 못 잡아 1시간에 15만원 하는 입시컨설팅을 받았다.

#3. 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했던 이모군. 제출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채워야 할 내용이 70~80페이지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원서·영어독후감 등 서류 작성에만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이군이 학교에 간 동안에는 부모가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는 진학교사로부터 3차례 감수를 거친 뒤 대학에 보내졌다.

복잡다단한 대학 입시제도가 수험생·학부모들을 '탈진'시키고 있다.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에서 최대 9개 대학에서 9번의 시험(수시1차 3회, 수시2차 3회, 정시 3회)을 치를 수 있다. 전형 방법은 3000개가 넘는다. 기간은 수능시험 끝나고도 4개월간이나 지속된다. 이렇게 복잡하다보니 일각에서는 '입시학(入試學)'이라고 부를 정도다. 학문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푸념인 것이다.

◇**심리적 고통**=수험생 학부모들은 학교의 뒷짐 진 입시지도를 질타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학부모 박모(47)씨는 수험생 아들의 입시 상담을 위해 지난해 5월 학교를 방문했다. 하지만 담임은 고3이 처음이었다. 박씨는 "3000가지가 넘는 대입 전형을 초짜 담임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며 "고3은 아이들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능시험 이후 4개월이나 걸리는 지난한 입시 일정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다양한 기회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넉달동안 9번의 논술·면접 시험의 반복은 정신적 공황상태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부담**=총 7곳의 수도권 대학에 도전한 김군 부모는 최근 넉달새 입시 비용으로 300만원을 썼다.

전형료만 50만원 들었다. 또 수시 1차·수시 2차 논술과 정시를 보기 위해 3차례 서울을 방문해 왕복 교통비와 숙식비, 체류비로 100만원가량 썼다. 김군은 이번 주 S대 논술·면접구술을 앞두고 서울 유명 학원에 등록, 2과목 2주일에 90만원이 드는 집중학습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고시원 생활(50만원)과 용돈(30만원) 등을 합하면 면접을 준비하는 비용만 170만원이 들어갔다.

학부모 김씨는 "수도권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전형료뿐만 아니라 교통비에다 연고가 없을 경우 숙식비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선택형 수능' 혼란 가중**=예비고3 수험생들부터 적용되는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이 장기화되면 결국 수험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려대·연세대 등 9개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서울지역 고교 진학지도교사 모임인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비 65억 들여 미술품 구입 순천제일대 미술관
수사후에도 '문 꽁꽁'… 달라진게 없다
대학측 "관람객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닌데…"

11일 순천제일대 도서관 1층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 앞에 설치된 지문 인식기로 인해 담당 직원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담당 직원은 이날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냈다. 휴관을 알리는 어떤 안내도 없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 미술관에는 순천제일대 총장 성모(63)씨와 행정처장 공모(70)씨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입한 미술품(65억원 상당) 270여점 대부분이 보관돼 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순천제일대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교비 65억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순천제일대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미술관련 학과나 강좌가 없음에도 임의로 미술품을 선정 구입해서 수십억원의 교비를 사용했다. 검찰은 당시 "사실상 총장 1인을 위한 미술관이었다"고 말했다.

성씨 등은 학생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품을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1인 미술관'은 검찰 수사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도,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대학 직원은 "미술관은 상설전시장이 아니고 기획전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 놓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국·공립 미술관이 특정 휴관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직원은 또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도 했다.

이러다보니 작품 구입에만 65억원을 들였다는데 어떤 작품이 전시돼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고 관람도 힘들다. 검찰도 "구입 작품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검찰 수사에도 불구,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순천 제일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10일 "이사회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고 위법행위가 밝혀질 시 횡령 교비에 대한 전액 환수 및 관련자 처벌, 퇴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순천제일대 송모(24)씨는 "학생 등록금으로 만든 미술관인데 학생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거액을 들여 구입한 작품인 만큼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울지마 톤즈' 3주기 담양 추모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사이자 교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0년 1월 세상을 떠난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故) 이태석 신부의 '선종 3주기 추모 미사'가 13일 오후 담양천주교묘지에서 장동현 신부의 주례로 집전됐다. 이날 미사에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부산, 창원 등 전국에서 신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수단어린이장학회 제공〉

누그러진 날씨… 얼음놀이 조심

혹한의 날씨가 누그러지면서 얼어 있던 강이나 저수지의 얼음이 녹아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에서 초등학생 최모(14)군, 장모(10)군, 강모(여·8)양 등이 저수지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 의식을 잃었던 최군은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12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저수지에서 김모(15)군 등 중학생 2명이 저수지 중앙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다. 김군 등은 인근에 있던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5분 만에 구조됐다. 광주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얼음이 군데군데 녹고 있어 저수지나 강에서 얼음을 타고 노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세열기자 hot@

지리산 시암재 주차장서 50대 숨진 채 발견

13일 오후 1시30분께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시암재 주차장에서 박모(50·서울)씨가 차량 안에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119구조대는 박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서울소방본부의 위치 추적 요청에 따라 수색을 벌인 끝에 주차장 자량안에서 박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박씨가 탄 차량 안에 농약병이 놓여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만취 60대 지인 태우고 가다 쾅

쌍나팔

○…한 60대가 새벽녘 술에 취한 채 지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주변 화단으로 돌진해 전복되는 바람에 병원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11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 부근에서 정모(62)씨가 혈중 알콜농도 0.09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것.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정씨가 딴 생각을 하다 농성광장 화단으로 돌진한 것 같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건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푹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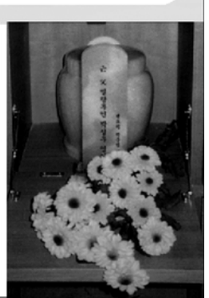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